

홍천실버신문

건강한 노후 · 활기찬 노후 · 일하는 노후 · 행복한 노후



발행처 홍천군노인복지관 발행인 자월스님 발행일 2017. 8. 1 주소 강원도 홍천군 읍 태학여내길 80-3 전화 033-430-8700 FAX 033-430-8790 홈페이지 www.hcknowin.org/

내년부터 어르신 기초연금 25만 원 지급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어르신복지정책 발표



◇ 홍천군노인복지관(관장 자월)이 7월 21일 중복을 맞아 관내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2021년 30만 원으로 상향지급 등 100대 국정과제 발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020년 공익활동 수당 40만 원

문재인정부가 어르신 기초연금액을 2018년 25만 원, 2021년 3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19일 향후 5년간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어르신복지의 핵심내용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목표 아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100대 국정과

제 속에 이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문재인 정부의 어르신복지는 적정수준의 공적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과 치매국가책임제에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을 현재 20만 원에서 내년부터 25만 원, 2021년부터 30만 원으

로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또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해 올해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와 안심병원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경감을 확대한다. 홍천군노인복지관은 기억키움학교를 무료 운영하고 있다. 신중년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지원 및 대상을 확대 추진한다.

어르신일자리는 올해 43만7000개에서 2022년 80만 개로 확대하고, 공익활동 참여수당을 2020년까지 40만 원으로 인상하여 어르신 빈곤 완화와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정망을 강화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누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공동체의 보살핌을 받는 복지국가 근본정신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홍천지역 65세 이상 어르신인구는 1만5569명으로 전체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박영권 기자

* 홍천실버신문에서 홍천관내의 다양한 정보 및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홍천실버신문은 55세 이상 어르신 기자단이 만들어 가는 신문으로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나아가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를 제공받고 싶은 분은 구독신청 바랍니다. 홍천군노인복지관으로 구독신청서를 제출해주시거나 전화로 신청하세요!

* 홍천실버신문은 개인 및 단체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1일자 2,000부가 발송되고 있으니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광고료는 공익성 유무 확인 후 홍천실버신문 광고료 규정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CONTENTS



02 - 홍천군노인복지관 NEWS

03 - 귀농·귀촌인 이야기

04 - 경로당 탐방

05 - 다문화가정이야기

06 - 유적지/전설

07 - 우리 직장 칭찬릴레이

08 - 기자칼럼

- 독자기고



후원계좌 : 국민은행 313501-04-161305 농협 301-0084-3440-11 우체국 200238-01-006584

※보내주신 후원금(물품)은 기부금공제법 제 25조에 의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월정사복지재단
홍천군노인복지관

속근육 활성화 재활치료 실버세대 최적의 운동

요가보다 쉽고 힘들지 않아 혈액순환 강화
아랫배·엉덩이 발달시켜 균형·유연성 증가



◇ 홍천군노인복지관 필라테스반

필라테스는 우리 몸의 안 쓰는 작은 근육까지 쓰게 만들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는 실버세대에 딱 맞는 운동이라고 반원들은 입을 모았다.

홍천군노인복지관 평생교육프로그램인 필라테스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파견한 채은영 강사의 지도로 매주 수·금 오후 1~2시까지 본관 2층 놀이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박복순(70) 씨는 “요가보다 쉽고 힘들지 않아서 좋다”고 했다. “평소에 자주 손발에 쥐가 나

서 불편했는데 이 운동을 하고나서는 혈액순환이 잘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며 기뻐했다. “요즘에는 선생님이 식단까지 관리해줘서 건강이 좋아져 이만하면 100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제는 이 운동에 빠져 집에서 하고 어딜 가든 시도 때도 없이 한다”고 했다.

박금숙(71) 씨는 “그동안 운동을 모르고 살았는데 필라테스 운동을 해보니 이 운동이 바로 만병통치약”이라고 했다.

그는 “평소에 신경통과 이유 없이 몸이 아픈 데가 많았는데 이 운동으로 다 해결됐다”며 “필라테스는 내 몸의 주치의”라며 “힘들지 않게 반복하는 동작은 그 과정에서 몸 구석구석이 좋아서 박수를 치는 것 같다”고 했다. “몸 어딘가에 상태가 안 좋으면 나에게 하소연 해오죠. 그러면 그때부터 배운 동작을 하다보면 곧 좋다고 신호를 보내와요. 그러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운동을 하죠. 그러면 모든 몸 세포가 좋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목을 당겨주는 운동을 하면 목 근육이 행복해하고 발치기 운동을 하면 하체 근육이 시원하다며 좋아하는 데 아프다고 병원에 갈 일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소에 자기 몸과 소통을 해보라고 한다. 그런 후 운동으로 달래주면 언제 아팠냐는 듯이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했다.

채 강사는 “필라테스는 독일 요제프 필라테스가 고안한 운동방법으로 요가, 선(禪),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양생법 등을 접목시켜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아랫배와 엉덩이 부분을 단련시키는 것이 기본이다. 전신운동을 통하여 몸의 균형과 힘 유연성이 증가된다. 자세에 균형이 잡히고 관절과 척추가 강화되는 효과도 있다. 스트레스 감소나 긴장 해소에도 도움이 되며 신경과 근육이 조화를 이루어 민첩성이 향상된다. 최근에는 재활치료 목적으로 침상환자를 위해 근육회복과 세라밴드를 이용해 속근육을 단련시켜 정맥류의 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재활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했다. 채 강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선정한 건강 필라테스 전도사이다. **조정철 기자**



홍천 내촌면 주민 ‘허내화’ 어르신 천수연



홍천군 내촌면 주민들이 7월 14일 허내화 어르신 100세를 맞아 내촌면 공설운동장에서 천수연을 개최했다.

홍천군노인복지관 탁구반 회원 친선경기 개최



홍천군노인복지관 탁구반 회원 친선경기인 ‘탁구의 신을 찾아라’ 프로그램이 7월13일 복지관에서 어르신 44명이 출전한 가운데 열렸다.

독거노인 12명, 복지관 텃밭서 허브 등 재배



홍천군노인복지관은 홍천아산병원 지역협력 사업으로 허브 가꾸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업무협약으로 독거노인 12명이 복지관 옆 향기 그린(green) 텃밭에서 허브와 호박 등을 재배하고 있다.

귀농·귀촌인 이야기(8) 화촌면 굴운리 정연규 씨

농촌체험농장 운영 종종 땅서 조경수 관리



◇ 정연규(65) 씨는 화촌면 굴운리에서 농촌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KT 퇴직 후 귀향, 아내는 10년째 서울서 살아 산채농장 조성이 꿈... 봉사활동 예절강사에 행복

역대 최고기온을 갈아치우는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던 한낮인데도 그는 감자를 캐고 있었다.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고 뚝뚝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홍천군 귀농학교 3기 교육을 이수했다. 귀농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영포재 재실에 큰 가람 농원간판을 달았다. 농촌의 삶을 알리기 위해 농촌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산채농장 체험과 충효예절교육농장도 추진하고 있다. 또 종종 임야 2만 평에 스트로폴, 자작나무, 금강소나무 조경수를 가꾸고 있다.

그는 화촌면 굴운리에 귀농한 정연규(65) 씨다. 그의 아내는 10년째 서울에서 손주를 돌보고 있다.

그는 홍천군 동면 속초리에서 5남매의 큰아들로 태어났다. 집안이 가난하여 중학교 졸업 후 아버지가 경작하던 농사를 돌보게 되었다. 가정 형

편 때문에 “일찌감치 진로를 찾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그는 군 제대 후 고향인 동면우체국에서 배달 업무를 보는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동료의 소개로 유순자(62) 씨를 만나 4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을 했다. 부장부수라 했던가? 아내도 근면하고 성실해 춘천서 거주할 때 부녀회장과 바르게살기회원으로 활동했다. 홍천우체국 근무 때는 원호주택 30여 가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연금을 타기위해 한 달에 한번씩 우체국을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알고 공과금과 연금수령을 갖다 드렸다.

또 국문 해독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편지도 대필해 드렸다. 지금은 전화가 핸드폰으로 바뀌어 간편한 문자를 보내고 버튼만 누르면 상대의 음성을 듣지만 70년대에는 편지로 소식을 전하는 일이 많았다.

그는 연금 혜택이 주어지는데도 연금을 받지 못

하는 딱한 사연을 듣고 육군본부에 공상 기록을 조회하고 원주국군병원에 어르신을 모시고 가서 심사를 받아 매월 60만 원의 연금을 받도록 도와드렸다. 보훈 가족에 앞장서 일하다 보니 그 공과가 알려져 방송이 되고 보훈의 달에 라디오에 출연해 대답도 가졌다. 그로인해 국가보훈처장 표창과 체신봉사상, 성군관관장상, KT 스타상도 받았다.

그는 “귀농 후 11년간 집 옥상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힘찬 기상을 되새긴다.”며 무궁화도 심어 마을의 도로변을 가꾸었다. 무궁화 묘목을 밭에 재배해 전국의 필요한 곳의 요청이 있을 때 무상으로 보내 주었다고 한다. 그의 나라 사랑을 보는 대목이다.

부모님으로부터 포은 정몽주의 후손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자랐다. 정몽주는 우리나라의 성리학의 시조로 고려 개혁을 주장한 충신이다. 충신의 후손으로 충효 사상이 가슴에 배어있어 가정교육과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홍천군장애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홍천향교 유림으로 충효교실에 참여하고 있으며 태극기 달기와 무궁화 심기에 홍보와 활동을 하고 있다.

퇴직 후 잠시 가리산 강우레이더관측소에 취업해 물의 고마움을 알았다. 그는 “수 년 전부터 대형 플라스틱 물통에 밸브를 장치해 빗물을 받아 텃밭에 물을 주며 용수로 쓰고 있다”며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도 물을 아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변의 무단 투기된 농약병이나 쓰레기도 수거해 환경 미화에 앞장서고 있어 그의 집은 고물상을 연상시킨다고 했다.

두 아들을 둔 그는 며느리 자랑이 대단했다. 큰 며느리는 서울의 농협에 근무하고 둘째 며느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홍천향교 예절강사로 활동한지 30여 년이 지났고 성군관 전학으로서 자부심도 강했으며 예절홍보로 장애인복지관 식구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즐겁다고 한다.

휴과 함께 생활하면서 장애인복지관 봉사하라. 예절강사로 활동하라. 귀농학교 3기모임에 참여해 홍천의 귀농귀촌을 홍보하라. 홍천문화원 정회원으로, 홍천문인협회 활동 등 그는 몸이 몇 개가 되어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어 마냥 행복하다고 했다.



김정현 기자

경로당 탐방시리즈 (38) 홍천읍 갈마곡4리 경로당

하루 20명 이상 정담 나누는 동네사랑방

매달 2회씩 홍천강변도로 청소, 화단관리 등 봉사 활발
서예·민요 등 재능기부부터 이장까지 회원들 활동 다양



◇ 갈마곡4리 경로당(회장 이용복(84)·앞줄 가운데)

홍천읍 갈마곡4리 경로당은 주공1차아파트가 생기면서 2003년 아파트 2층에 15평 규모로 자리 잡으면서 운영하게 됐다. 주공1차아파트는 802세대 18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초대회장은 김봉렬(81) 씨가 맡았다가 2006년부터 이용복(84) 회장이 회원 41명(여자 28명, 남자 13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또 김광자(74) 부회장과 이종협(80) 사무장이 경로당 대소사를 맡고 있으며 공공일지리에 여자 14명, 남자 5명 총 19명이 참여하고 있다.

경로당회원들은 2016년 8월부터 매달 2회씩 아파트 주변 홍천강변도로 일대의 쓰레기 수거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아파트주변 환경정리 및 화단을 가꾸고 있다.

경로당에는 홍병문(92) 씨, 안치원(89) 씨, 황옥순(89) 씨 등 장수회원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경로당은 하루 평균 20명이 넘는 회원이 방문해 정담을 나누고 동네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경로당 지원 프로그램으로 민요 프로그램을 지원받았지만 현재는 지원프로그램이 없

어 김광자(74) 부회장의 재능기부로 민요를 배우고 있다. 이 민요프로그램은 3월부터 10월까지 매일 점심 식사 후 2시간씩 진행되고 있는데 참여자들이 즐거워하는 등 호응도가 높다.

또 경로당 고문인 김봉렬 초대회장은 홍천향교 명예 부전교로 활동하고 있으며, 타의 모범이 되어 향토발전은 물론 회원과 돈독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예가로 홍천지역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에게 가훈 등 휘호를 써주고 있으며, 매년 입춘

이 되면 군민의 안녕을 위해 글귀를 쓰고 있다.

이종협(80) 사무장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경로당 행사 등 굵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이 사무장은 이장까지 맡고 있다. 홍천지역 최고령 이장이다. 회원들은 이 사무장의 경로당과 마을일에 대한 열정적인 활동에 홍천군수 표창장을 상신하겠다고 했다.

이용복 회장은 “경로당에 컴퓨터가 없어 많은 세대와 회원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아 편리하고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경로당이 2층에 위치해 있어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 엘리베이터 이용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안태수 기자

◇ 경로당 임원 현황

직책	성명	연령	직업
회장	이용복	84	농업
부회장	김광자	74	주부
이사	박창근	80	농업
이사	최경숙	81	주부
이사	김춘란	79	주부
감사	한영희	84	전공무원
사무장	이종협	80	농업

☎ 033-434-1787

고시조

말 없는 청산이요

- 성혼(1535~1598) / 조선중기 문신·학자

말 없는 청산이요 태(態) 없는 유수(流水)로다
값 없는 청풍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라
이중에 병 없는 이몸이 분별없이 늙으리라

·해설: <논어>에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라는 말이 있다. 두루 흘러 막힘이 없는 물과 의리를 편안히 여겨 움직이지 않는 산의 속성을 끌어와 삶을 통찰한 것이다. 소식은 <적벽부>에서 “천지사이 사물에는 제각기 주인이 있어 나의 소유가 아니면 한 터럭이라도 가지지 말 것이나 강위의 맑은 바람과 山間(산간)의 밝은 달은 귀로 들으면 소리가 되고 눈에 띄이면 빛을 이루어서 가져도 금할 이 없고 써도 다함이 없다”라고 말한다. 작자는 “없다”라는 단어를 여섯 번이나 써 “무욕”의 자연과 일체가 되고자 하는 달관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조정철 기자

사자성어

浩然之氣(호연지기)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넓고도 큰 원기를 말함. 사사로운 일에서 벗어나 자유스럽고 유쾌한 마음. 호연은 넓다, 크다는 뜻이고 기란 기운의 뜻. 그러므로 하늘과 땅 사이에 넘치게 가득 찬 넓고도 큰 원기의 뜻으로 도의에 뿌리를 박고 공명정대하여 조금도 부끄러울 바 없는 도덕적 용기나 사사로운 일에서 벗어나 자유스럽고 유쾌한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조정철 기자

다문화가정이야기 (37) 홍천읍 도세이 미유키 (54) 씨

“홍천군 다문화여성에 일본 춤 가르쳐요”



◇ 도세이 미유키(54) 씨가 밝게 웃으며 가족과 함께 있다.

스리랑카서 봉사활동 중 남편 만나 결혼 1남2녀
초교서 11년째 청소일... 경주·제주도 여행이 꿈

“각종 영양이 다 들어있고 닭 한 마리 통째로 먹을 수 있는 삼계탕이 좋아요.”

일본에서 시집과 홍천읍 희망리에 살고 있는 도세이 미유키(54) 씨는 “한국음식 중 삼계탕을 가장 좋아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일본 오사카에서 아버지 도세이 신야(82) 씨와 어머니 도세이 마사코(83) 씨의 2녀 중 막내다. 아버지는 의료용품 납품회사(오크무라 상점)에서 65세로 정년퇴직했고 어머니는 증권회사에서 퇴직했다. 그녀는 일본 칸사이 여자의료기술헌문학교를 졸업하고 병원, 카드발급회사, 인쇄소, 골프용품회사 등에서 결혼 전까지 근무했다.

아버지가 퇴직 후 다리 골반이 좋지 않아 휠체어 생활을 했고 어머니도 척추 압박골절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여러 가지 집안의 복잡한 상황이 있어 그녀는 언니와 함께 종교를 갖게 되었다.

1994년 통일교회 여성연합회에서 고아, 장애인 등의 의료, 간호 봉사활동단원으로 스리랑카에 갔다. 그녀는 유치원 아동들에게 체조와 노래를 가르쳐줬다. 그곳에서 봉사활동 중 통일교회 주관으로 남편 안국찬(55) 씨와 결혼을 위한 인적사항의 프로필을 주고받았다. 팩스로 본 남편의 인상은 날카로워 보였지만 일본인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화합하는 의미로 한국인과의 결혼을 염두에 두었다. 국제결혼해서 스리랑카에 와서 살고 있는 아는 언니의 통역을 통해 여러 차례 남편과

전화를 했다.

1995년 8월 24일 서울에서 남편을 만났다. 사진과는 다르게 부드러움이 있었고 싱글벙글 웃는 얼굴이 마음에 들었다. 남편은 그녀가 40대로 보였던 팩스사진과 달리 옛된 중학생 같이 귀염성 있다며 좋아했다.

1995년 8월 25일 잠실 올림픽경기장에서 합동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이 끝나고 시댁으로 오지 못하고 스리랑카로 돌아갔다. 약속한 3년의 봉사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남편과 부모의 관계가 원만치 않고 남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녀는 바로 관계자와 상담을 한 후 주변을 정리하고 일본으로 귀국해 필요한 수속을 밟아 1997년 3월 27일 시댁인 춘천으로 왔다.

남편은 아버지 안동인 씨와 어머니 이정화 씨의 2남1녀 중 맏이였다. 시아버지는 10여 년 이상 나무를 나르는 트럭을 운전하다 버스운전을 했지만 사고로 일을 멈췄다. 시어머니는 송아리 젖을 사다 집에서 껌질을 벗겨 백자로 만들어 청량리서 판매했다. 남편은 춘천한샘고교를 졸업하고 가평의 도로건설현장에서 6년 동안 물차트럭 운전을 했다. 공사완료 후 트럭을 가지고 아파트나 관광지 다니면서 채소, 과일, 옥수수, 빵 등 여러 장사를 했지만 형편이 어려웠다. 그 뒤 건축현장에 일을 다녔다.

1998년 아들 효신(20)을 낳고 이어 큰딸 연하

(17)와 연년생으로 작은딸 연수(16)를 낳았다. 남편이 시어머니가 하던 잣 장사를 하고 싶어 했다. 집값이 춘천보다 저렴한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에 공장을 차리고 시부모 시동생 등 온가족이 함께 했다. 남편은 인근에서 잣송이를 사와 탈피작업을 하고 피잣 백자를 만들어 판매했는데 40kg~60kg 이상 나가는 무거운 잣송이자루를 취급하다보니 힘이 들고 무리해 어깨와 무릎관절 인대가 늘어나 장애등급을 받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2년 후 장사를 접었다.

시부모와 시동생은 춘천 시댁으로 갔다. 당시 홍천에는 광고전단지 배포하는 일이 없어 그녀는 춘천으로 출퇴근을 하며 6개월 동안 광고전단지를 돌렸다.

일본에서 시집온 같은 교회 다니는 지인의 소개로 2006년 말부터 삼포초등학교에서 청소하는 일을 시작해 현재 홍천동면 속초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시부모님은 별세했다. 아들은 홍천농고 졸업 후 인천에 있는 대형냉장고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큰딸은 홍천농고(2년)에, 작은딸은 강원생활과학고에 재학 중이다.

그녀는 한 달에 2번씩 다문화가정의 주부 10명을 대상으로 일본 춤을 가르치고 있다. 홍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매년 10월중에 열리는 ‘한마음 축제’와 통일교회의 연말 행사 때 발표하기 위해서다.

매년 한 번씩 친정에 다니오는데 일본에 있는 언니가 비용은 부담해준다. 부모님은 모두 요양원에 입소해있다. 홍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선으로 강릉사임당교육원에 1박2일 다녀오고 가족들과 동해안을 다녀온 것 빼고는 나들이를 한 적이 거의 없어 경주나 제주도에 가보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한국인의 질서인식 결여를 꼬집었으나 한국인은 정이 많아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접근해 쉽게 말을 하며 스펀지 없이 이웃처럼 대하는 태도가 좋다고 했다.

가끔씩 주변에서 일본사람이라 모를 거라며 제쳐놓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할 때는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다며 일본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은 더 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이 소심해 사람을 사귀는 것이 시간이 걸린다.”며 “아플 때 도와주고 싶고 얘기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정을 나눌 수 있는 깊은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옥희 기자



유적지 탐방(18) 홍천 향토사료관

홍천지역 선조들의 생활상 한자리에 전시



◇ 홍천향토사료관

홍천향토사료관은 홍천읍 무궁화 공원 나무숲속에 자리 잡고 있다.

5800㎡(1,800여 평)의 부지위에 670㎡(200여 평)의 2층 현대식 건물이다. 주변에는 희귀한 야생화가 있고, 작은 공연장이 마련됐다.

1층은 선조들의 생활용품, 전통 민속품들이 진열됐다. 고대부터 홍천의 역사가 대형 액자에 사진과 함께 전시되어 눈길을 끈다.

2층은 무궁화 역사관과 농경 전시관이다. 이곳에는 시가 3000만 원짜리의 2단 장풍이 있다. 이 장풍은 이곳에서 해설하고 있는 김종구(80) 어르신이 기증한 것이다.

홍천향토사료관은 2003년 5월 개관했다. 관람객은 지역주민보다는

서울, 원주, 춘천 등 타지역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준수(55) 관장은 “홍천문화원 문화탐방프로그램과 육군 11사단 장병들의 역사문화알기 탐방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이 많아지고 있다”며 “홍천 사회단체, 이장협의회 등의 관심이 높아져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중고교생들의 단체관람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관람료는 무료이고 넓은 주차장을 자랑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박세구 기자



전설(18) 홍천 팔봉산

한양 가던 뗏목서 4마리의 쌍봉낙타 발견



◇ 홍천군 서면 팔봉산

일제 강점기에 홍천 화촌면 구성포리에 최승덕과 이빈자 부부가 세 딸과 사위와 함께 살고 있었다.

최승덕은 정직하고 의롭고 강인한 성격에 학식이 풍부해 평창에서 소나무 원목을 서석면 미약골에서 홍

천강을 따라 구성포까지 운반해 쌓아 놓았다가 장마 때 뗏목을 만들어 한양 마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내와 세 딸과 사위를 설득해 뗏목을 만들었다. 동네 사람들이 비웃었다.

최승덕은 장마가 오면 거대한 뗏목이 한양 마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마침내 오대산 소나무 원목과 풍천리 소나무 원목으로 큰 뗏목을 완성했다. 그 후 일주간 폭우가 쏟아졌다. 장마에 물이 불어 뗏목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뗏목은 홍천과 북방을 거쳐 춘성군 남산면 어유포리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뗏목을 바위에 묶고 김기권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하룻밤 유숙했다. 새벽에 만사위 이은우가 나가보니 4마리의 쌍봉낙타 구

름이 밤안개 사이로 나타났다. 그 광경이 괴이해 집 주인에게 물었다.

집주인은 그건 쌍봉낙타가 아니고 산이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8개의 봉우리가 솟아올라 팔봉산이라고 이름 하였다고 한다.

아침 식사 후 뱃줄을 풀어 뗏목을 흐르는 물살 따라 갔다. 서면 밤별 유원지를 거쳐 경기 양수리를 지나갈 때, 저녁 무렵에는 한양 마포에 도착했다. 최승덕은 원목을 팔아 많은 돈을 벌었다. 이웃에게도 후한 대접과 품값을 톡톡히 주었다. 홍천 소나무 원목은 승례문 건축에 쓰여졌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광명 기자



우리 직장 칭찬릴레이 (39)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새 농법 농가보급 6차 산업시대 개척

홍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창)는 새로 개발된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현장지원 강화로 농업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3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조직은 2과(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8담당 2지소(동부지소, 서부지소)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있다.

홍천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가의 경영진단을 하고 친환경 농업기술 및 과학 영농기술을 지원한다. 지역 특화작목을 발굴해 보급하고, EM(유용미생물)을 보급해 준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교육강화로 농업기계화사업 확대를 통해 농업기술, 경영, 정보가 융복합된 고부가가치 6차 산업의 시대를 농업인과 함께 열어가고 있다. 직원들이 사무실에 모여 칭찬릴레이를 시작했다.

김정실 농촌사회과장이 남현우(35) 농기계교관을 칭찬했다. 홍천 태생인 남 교관은 2007년에 입사하여 짧은 패기와 남다른 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기술과 농기계대리점에서 익힌 숙련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농기계임대사업과 마을별 순회정비교육을 추진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못 고치는 농기계는 없는 ‘농기계 박사’로 통한다. 특히 고령화된 농촌마을에 꼭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해주기 위해 새롭고 편리한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도입한 농기계를 논밭으로 직접 배송하는 등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을 발굴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에 동료 직원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남 교관은 “순회정비교육 현장을 찾은 농업인들이 비록 오래되고 낡은 기계지만 새것처럼 시원하게 돌아가는 엔진소리에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 자부심과 함께 현장에서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남 교관은 박광원(48) 지도사를 칭찬했다. 경제작물담당인 박 지도사는 홍천 토박이로 어렵고 힘

든 일이 닥쳐도 즐거운 마음으로 대처해 나간다. 작목이 많고, 병해충 종류도 다양한 경제작물분야는 많은 군민들이 궁금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부서로 항상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말라

량을 절감하고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른 농식품시장의 글로벌화, 소규모 가족농의 소멸위기, 기후변화 등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농업인들과 함께 고민하며 건강한 먹거리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한다. 그는 “농업인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충실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농업인을 웃게 하고 나아가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거리를 좁히는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데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 지도사는 전용태(47) 지도사를 칭찬했다. 농촌여성교육을 담당하는 전 지도사는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 3고(苦) 현상이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문화 기반조성을



남현우 농기계교관



박광원 지도사



이은애 지도사



전용태 지도사

남현우 농기계교관 - 농업인에 꼭 필요한 사업 발굴 농기계 박사

박광원 지도사 - 어렵고 힘든 일 닥쳐도 즐거운 마음을 갖고 대처

이은애 지도사 - 농업인-소비자 거리 좁히는 건강한 먹거리 지원

전용태 지도사 - 건강장수마을 19곳 유치 전국우수상 수상 기여

죽는 오이나 바이러스 등 병해충에 걸린 고추 등 민원인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하나하나 진지하게 상담하며 해결방법을 찾아 농업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대하고 찾아오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옆에서 보는 사람을 흐뭇하게 한다. 그는 “최근에 내린 폭우로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장마 이후 가지 오이 등 농작물의 생리장애와 병해충이 확대되어 더 많은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지도사는 이은애(48) 지도사를 칭찬했다. 친환경농업종합분석실에 근무하는 이 지도사는 토양, 농업용수 등 농업환경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경제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지원을 하고 있다. 농산물에 대한 320여 종의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친환경 및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여러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화학비료 사용

목표로 19개 마을에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유치하였고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활동, 소득활동 등에 아낌없이 지원하여 강원도 농촌건강장수마을 경진대회 6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과 지난해 전국단위 「우수상」을 수상하는데 기여했다. 해당 마을주민들은 “장수마을사업이 건강도 지키고 소득도 올리는 등 농촌고령화에 대응한 적합한 마을사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성농업인을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리더로 육성하고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서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교육 후에는 과정별로 그동안 배운 내용에 대해 발표전시회를 추진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사무실에 모인 직원들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찾아가는 대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하여 고객감동의 지역농업 발전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최정규 기자

기자칼럼



최 정 규

홍천실버신문 기자

며칠 전 친척 부부가 상의할 일이 있다며 우리 집에 왔다.

남편(78)이 치매 증상이 있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했더니 직원이 나와서 검사를 했는데 판정이 나왔다며 어떡하면 좋겠냐며 상담을 요청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치매 5등급(재가)으로 판정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가족, 친척, 지인들 중에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이 드물지 않게 있다. 우리사회는 이미 100세 장수시대에 접어들어 수명은 길어졌는데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장수가 축복이

지만 치매를 비롯한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들에게는 장수가 고통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나 배우자가 이런 질병에 시달려도 가정에서 같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보살펴줘야 자식으로서, 배우자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결과 가족들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심지어는 간병하던 가족이 먼저 지쳐 쓰러지는 사례도 발

(100여 명)의 생활하는 모습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내부로 들어서니 30여 명의 노인들이 한곳에 모여 직원의 몸짓에 따라 건강 체조를 하고 있었다. 부부(남77, 여76)가 함께 입소해 있는 숙소를 방문해서 인사했더니 1년 전에 딸이 보내줘서 요양원에 입소했는데 의사가 월2회 방문 진료를 하고, 음식도 입에 맞고, 직원들도 친절해서 불편한 점이 없다고 대답했다.

요양원에서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의 보호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일상생활 지원, 진료 및 의료, 재활, 여가, 가족연계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다. 요양원 사무국장은 “요양원을 선택할 때는 주변 사람들의 입소문을 듣거나,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을 통해 시설, 등급 등을 파악하고, 결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서 분위기, 시설, 직원, 프로그램, 식단 등을 살펴보고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제는 요양원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바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집에서 끝까지 보살펴주는 것도 좋지만 그 삶이 너무 힘들다면, 요양원에서 전문가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환자에게 더 나은 환경이 될 수도 있겠다. 요양원에 가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며, 요양원에서도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한분(여·65)을 더 만나보았는데 10여 년 전에 요양원에 입소했으며, 식단도 만족스럽고, 직원들(특히 간호과장)도 친절해서 좋고, 물리치료도 잘해줘 불편한 점이 없다면서 10년 넘게 있었는데 집과 같이 편안하다고 했다.

요양원에 입소대상이 되는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이며, 각 등급별로 시설등급을 받아야 입소가 가능하고, 재가등급을 받으면 집에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요양원에 대한 나쁜 선입견 바꿔야 한다

독자기고

소설가보다 어머니의 삶을 살았던 박경리!



박 재 민

문학기행반

지난 6월 원주에 있는 박경리 문학공원에 다녀왔다. 홍천군노인복지관 문학기행반에서 야외수업으로 문학기행을 다녀온 것이다.

박경리 문학공원에 미리 예약을 해놓아서인지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해설사가 박경리 선생의 동영상을 보

여주고, 유품이 전시된 박경리 문학의 집을 자세히 설명해줘 아주 유익했다. 해설사로부터 선생의 생애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선생의 단편소설 <불신시대>의 주인공 진영을 떠올렸다. 그리고 당시 그와 유사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했던 나의 과거가 떠올라 가슴이 뭉클하면서 머릿속이 텅 빈듯함을 느꼈다.

박경리 문학공원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지만 규모 있게 조성됐다. 박경리 선생이 원주에 정착하여 16년 동안 살면서 대하소설 <토지> 4부와

5부를 집필하여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 그 집이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서 수용되었다고 한다. 그러자 지역 주민은 물론 전국의 소설가를 비롯한 문인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위대한 소설가 살던 집을 부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으면 되겠느냐고 이의를 제기해 주택공사에서 문학공원을 조성하여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게 됐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오늘날의 박경리 문학공원이다.

문학공원은 박경리 문학의 집과 <토지>를 집필한 선생의 옛집, 북카페, 평사리마당, 흥이동산, 용두레별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남 하동 평사리에서 간도 용정까지의 삼천여리를 무대하여 펼쳐진 대하소설 <토지>의 깊은 뜻이 읽히는 걸음마다 느껴지는 큰 공원이었다.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만난 사람은 위대한 소설가라기보다는 훌륭한 한 인간이었다. 남편(김지하)을 감옥에 보내고 고생하는 딸의 울타리가 되어 주기위해 정착한 원주에서 삶을 마감한 박경리 선생은 소설가 이전에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였다.

대하소설을 집필하는 틈틈이 농사일도 하면서 격동의 시대를 살았다. 박경리 선생은 1926년 10월 28일 경상남도 통영시 명정리에서 박수영 씨의 장녀로 태어났다.

진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0년 황해도에서 여자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6·25전쟁으로 월남해 김동리 선생의 추천을 받아 현대 문학을 발표, 등단했다.

1957년부터 본격적으로 문학 활동을 시작하여 단편소설 불신시대를 비롯해 수많은 소설을 발표하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69년부터 25년에 걸쳐 5부로 완성된 토지(土地)는 한국 근현대사에 걸쳐 여러 계층의 인간의 상이한 운명과 역사의 상관성을 다룬 작품으로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그는 6·25전쟁 때 남편이 납북되어 딸과 함께 생활했으며, 2008년(당시 82세) 폐암으로 사망했다. 2008년 금관문화 훈장이 추서됐으며 25년간의 각고 끝에 금자탑을 이룬 공로에 진정으로 감탄을 금할 수 없다. 박경리 선생에게 머리 숙여 존경과 추모하는 바이다.